

##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3차 지원심의 - 심의총평

- 사업유형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3차 지원심의
- 심의분과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회의일시 : 2019년 9월 5일(목) 13:3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창조관 및 실험무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3차 지원심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의로 최종 선정된 연구생4인의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최종공연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이다. 연구생들의 조사연구 실행결과 및 중간발표, 최종공연 기획안, 실연, PT, 인터뷰심의로 진행되었으며, 지원심의는 조사, 연구 충실성, 예술적 우수성 및 차별성,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성취도 및 파급효과 등의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심의하였다.

심의 위원들간의 합의된 중점적인 고려사항은 연구생들이 과연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주어진 타임라인 안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가에 있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연구생들이 사용하는 국악적인 여러 요소들의 타당성과 작품 안에서 서양악기와와의 조화 및 국악기 또는 한국적인 요소의 직접적인 효율성에서 관한 많은 논의와 질문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생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아쉬운 단계였으며, 좀 더 깊은 연구와 서양악기와와의 조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중간평가 10분내외의 작품이 과연 50분정도를 진행되었을때의 문제점과 실제 연주와의 편성이 다른 연구생들의 작품에 대해 지적하는 심의위원이 있었다. 몇몇 연구생들은 본격적인 작업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며, 시간활용에 대한 많은 우려가 심의위원들 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자신만의 개념을 가지고 곡을 접근하려는 의도와 국악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서양악기와와의 조화를 만드는 등의 시도는 바람직하였으며, 비록 부족하고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으나 연구생들이 자료조사와 멘토 상담 및 국악기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창작 아카데미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선정된 4인의 연구생들의 최종지원금은 공연대관 및 연주단체의 공유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다만 위원회 전체회의의 최종결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연구생들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국악기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깊은 연구와 전체적인 작업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젊은 창작인들을 위한 소중한 사업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들의 끊임없는 시도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내년 창작아카데미 공연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2019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